

# 장성군 콩알메주, 전 세계 입맛 사로잡는다

### ‘남도 양길수 발효식품’ 12종 장류 품질향상 제조장비 지원 복합종균 사용시 2일 만에 발효 전 과정 마무리...깊은맛 나

장성군이 지역 내 식품기업과 손잡고 콩알 메주 산업화에 출사표를 던졌다.

몸에 좋고 특유의 향미를 지닌 전통장류는 발효시간이 길수록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상품화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대량생산 된장이나 간장은 전통음식 고유의 맛과 건강을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장성군은 지역 내 기업인 ‘남도 양길수 발효식품’에 12종의 장류 품질향상 콩알메주 제조장비를 지원했다. 이어서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중균 활용 장류 품질향상 기술’의 이전을 도왔다.

‘중균 활용 장류 품질향상 기술’은 삶은 콩을 발효하는 초기 단계에서 발효 능력이 우수한 황국균, 바실러스균으로 이루어진 복합종균을 넣는 기술이다. 이 미생물들이 장류 안에서 우점종균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특정 온도에 발효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일반 된장은 30일 이상 발효해야 되지만, 복합종균을 사용하면 2일 만에 발효 전 과정이 마무리된다. 발효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보통의 장보다 깊은 맛이 난다.

전분 당화력(다당류를 단당류나 이당류로 변화시키는 능력)과 단백질 분해력이 2배 이상 높아 단시간에 아미노산으로 전환되면서 감칠맛과 소화 흡수력, 면역증강 물질 등이 늘어난다.

장성군은 지난 8월29일 북이면 소재 남도 양길수 발효식품에서 설명회를 갖고 시제품 제작 과정을 공개했다. 콩알메주를 이용한 맛된장과 메주가루, 고추장과 함께 ‘간편 생청국장’도 선보였다. 현재 제품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9월1일 장성 광주권 로컬푸드직매장에서 판매를 시작한다.

군 관계자는 “기술 적용을 통해 메주 제조기술을 현대식으로 개량하는 데 성공했다”며 “세계인의 K-푸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농가



소득 증대, 수출 확대, 농산업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향후 지역 내 7개 장류 제조업체와 전통발효식품에 관심이 있는 군민에게 추가로 기술 이전을 할 계획이다. 장성=김수권기자



## 나주시, 추석맞이 민·관 합동 일제 대청소 실시

나주시는 지난 8월29일 추석을 앞두고 깨끗한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한 민·관 합동 일제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8월30일 밝혔다.

이번 일제대청소는 20개 읍·면·동 주요 관광·시가지, 쓰레기 무단 투기 지역에서 분청 및 읍·면·동 공무원과 유관기관·사회단체 주민 1000여명이 대거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대규모 인력 지원이 필요한 무단 방치 쓰레기 수거와 불법 현수막, 광고물 등을 철거하며 추석 귀성객을 맞을 준비에 구슬땀을 흘렸다.

아울러 ‘내 집 앞, 내 상가 앞 치우기’ 캠페인 홍보를 통해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의 자발적 참여와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소각 금지 실천 등을 당부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를 앞두고 깨끗한 나주를 위해 아름다운 손길을 보태준 공무원, 사회단체 주민들께 감사 드린다”며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고향의 정취를 만끽하며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분야별 대책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나주=송준표기자

## 구례군, 지방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개량 추진

구례군은 지방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방상수도 확충과 소규모 시설 수도시설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례군은 올해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3억 3천 5백만 원을 투입하여 간전면 수평리 상판마을, 마산면 광평리 광평마을 등 2개소에 안정적인 지방상수도 시설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으며, 산동면 신학리 토치마을에는 올해 안에 지방상수도 공급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22년도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을 신청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총 10억 5천만 원(국비 735백만 원, 지방비 315백만 원)의 사업비로 산동면 이평리 지리산정원과 마산면 갑산리 대평마을에 안정적인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해 9월 안료를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리산정원의 산림휴양관광 활성화와 갑산리 대평마을 주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군내에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 및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통해 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의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해소하여 군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례=박진호기자

## 담양군, 여성회관 하반기 교육 개강

담양군이 2022년 9월 1일부터 하반기 여성회관 교육을 시작한다.

여성회관 프로그램은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및 취미활동을 통한 여성의 건전한 사회참여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하반기 진행되는 교육은 취·창업교육 및 생활문화교실로 기존 요양보호사, 한식조리기능사, 바리스타2급, 컴퓨터, 제빵기능사, 양장기능사 등 14개 과목에 도자기공예, 우쿨렐라(중급), 훌패션, 우리웃만들기 4개 과정을 신설해 총 18과목 183명에게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담양=박종영기자

지난 2022년 상반기 교육운영 결과 총 15개 과목 128명(취·창업과정 8과목, 생활문화과정 10과목) 수료했으며, 31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군 관계자는 “여성회관이 지역주민과 이주여성들의 다양한 교류의 장이 되며 다양한 교육으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담양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담양=박종영기자

## 구북규 화순군수 “주자묘 지역 대표 문화자원 활용 노력”

### 주자인문학센터 개강식 열려...공모 7곳 중 첫 수업

주자인문학센터가 8월26일 개강식을 열고 시작을 알렸다.

화순군은 8월 26일 인문학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된 7곳 중 능주면 주자인문학센터가 처음으로 개강식을 열고 수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인문학센터 사업은 군민 누구나 원하는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휴공간을 활용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주자인문학센터는 강원구 학장을 비롯한 7명의 교수진이 ‘인간의 길, 인문학에서 찾다’

라는 주제로 11월 25일까지 매주 금요일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개강식은 구북규 화순군수, 장청강 주광주 중국총영사를 비롯한 지역 주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장청강 주광주총영사는 “중국과 한국은 문화적 교류가 깊다”며 “경제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북규 화순군수는 “주자묘의 남다른 희소성과 문화적 가치를 잘 홍보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자원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모에 선정된 나머지 6곳(화순읍 2, 능주 1, 도암 1, 이서 1, 동북 1)은 9월 중 개강식을 열고 지역주민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을 제공할 방침이다. 화순=박순철기자

기업시민,  
함께 미래가 도다

#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SPS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엔텍

포스코건설  
포스코O&M

포스코케미칼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에너지  
포스코티미날

포스코ICT  
포스코A&C

포스코광판